증권 다이제스트

하이투자증권

"연금으로 ETF 매매하세요"

하이투자증권은 개인형 퇴직연금(IRP)고객, 연금저축 고객이 연금 자산으로 상장지수펀드(ETF)를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동시에 출시했다. ETF를 투자할 때의 장점은 무엇보다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다는 것과 낮은 거래 비용에 있다. 일반적으로 펀드 환매시 국내펀드는 2~3일, 해외펀드는 8일 정도 소요되는 반면에 ETF는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어서 시장변화에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또한 ETF는 일반 펀드에 비해 운용보수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별도의 환매수수료도 발생하지 않아 적립금 운용 효율성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IRP 및 연금저축은 연말정산시 최대 700만원(합산기준)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손엄지 기자

키움증권

연 10.5% ELS 공모

키움증권은 낙인배리어 50% 주가연계증권(ELS)을 공모한다. '키움증권 제896회 ELS'는 SK하이닉스 보통주와 유로스톡스50(EUROSTOXX50) 지수, 홍콩항셍중국기업(HSCEI)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3년 만기에 6개월마다 상환기회가 주어지는 스텝다운 유형의 상품이다. 모든 기초자산이 최초기준가격의 90%(6·12개월), 85%(18개월), 80%(24개월), 75%(30개월), 70%(36개월) 이상이면 세전 연 10.5%의 수익률로 조기 또는 만기상환된다. /손엄지 기자

SK증권 시럽웰스

화장품 브랜드와 프로모션

SK증권 시럽웰스가 화장품 전문 브랜드 제이준 코스메틱과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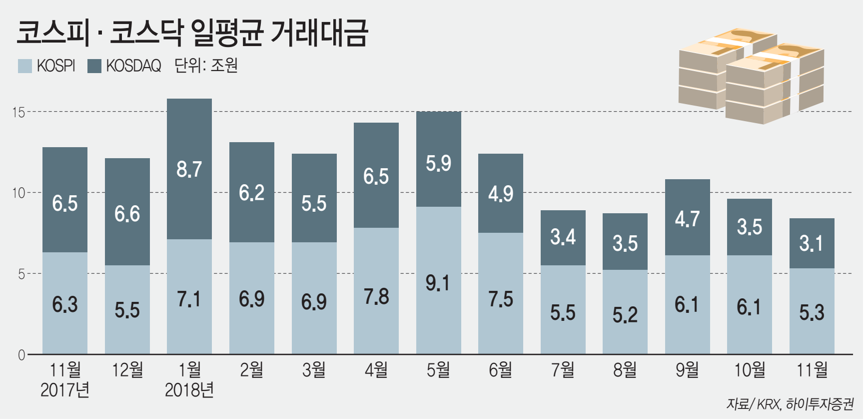
이번 행사에서 SK증권은 시럽웰스의 금융상품을 4개 이상 가입한 투자자(자산 2000만원 이상)에게 제이준의 고급 마스크팩 10종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럽웰스는 제이준과의 콜라보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으며, 제이준은 프리미엄 뷰티 제품을 다양한 고객군에게 노출할 수 있어 양사 간 시너지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프로모션은 투자에 관심이 많은 20~30대 여성 고객들에게 인기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손엄지 기자

산타랠리 사라진 증시… 12월 거래액 '최악'

〈연말·연초 주가 강세 현상〉 〈코스피+코스닥 일평균〉

11월 8.4조 거래… 전월比 12.5%↓ 글로벌 리스크, 국내경제 위축 등 상승 모멘텀 부족 "회복 어려워"



연말이 되면 주식시장에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가 커지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다.

산타랠리란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연말과 신년 초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연말 소비 증가에 대한 기대, 배당을 목적으로 한 투자수요 증가 등이 겹치면서 기대되는 이벤트다. 증권가에서는 연말을 물론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식시장에 큰 상승세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실물경제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1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1월 일평균 거래대금(코스피+코스닥)은 8조 4000억원으로 10월(9조6000억원)에 비해 12.5% 감소했고, 올해 월간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또 12월 들어 지난 11일까지 일평균 거래대금은 8조877억원으로 역시 연간 최저수준의 거래량을 보이고 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9월 이후 하락추세다. 월간 기준으로 11월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9조6135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5월(12조4985억원)보다 23.1% 줄었다. 이달 10일 기준으로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9조7230억원이다.

신용거래융자란 개인투자자들이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주가 상승을 기대할 때 '레버리지 투자'를 한다. 신용거래융자가 감소하는 것은 그만큼 주가 상승을 예측하는 투자자의 수가 감소했다는 뜻이다. 또 주가 하락이 예상돼 서둘러 신용융자를 상환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증시에 자금이 돌지 않자 주가도 약세다.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이달 들어서만 2.09% 하락했다. 연 초 대비 16.79% 하락했다. 코스닥 지수 역시 마찬가지다. 이달 수익률은 마이너스(-)4.99%, 연 초와 비교하면 17.21% 내렸다. 보통 연말과 연초에는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가 많다. 이른바 '산타랠리' 기대감이다

실제 메리츠종금증권이 2000년대 이후 코스피, 코스닥의 주간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12월 마지막 주에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경우는 코스피 13번, 코스닥 12번으로 각각 68.4%, 63.2% 확률로 상승했다. 1월 첫째주 플러스 수익을 기록한 확률 역시 각각 66.7%, 94.4%로 나타났다. 또 12월 마지막주와 다음 해 1월 첫째주 누적 수익률은 평균 1.56%, 4.02%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는 '산타'가 오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불확실한 글로벌 정치·경제 환경과 국내 경제 위축 우려 때문에 주가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2.7%, 내년도에는 2.6%, 2020년에는 2.5%로 점진적으로 하강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봤다. 또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내년 코스피 주요 상장기업(164개사)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198조5563억원으로 전망했다. 6개월 전 추정치(217조792억원)보다 8.7% 쪼그라든 수준이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변수들이 나타나야 투자심리가 회복되고 주가도 반등하기 마련인데 지금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면서 "투자심리가 살아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경기둔화 ▲유럽의 정치 불안 ▲중국의 환율 변화 등 세 가지 부담 요인이 잔존하는 한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심리는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또 정다이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미중 무역분쟁이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위축시켰고 신규 주문 감소, 글로벌 교역량 감소와 같은 실물지표 부진으로 나타나고 있어 투자자들의 전반적인 관망세가 짙어졌다"면서 "올해는 산타랠리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균 개발… 25개국에 제품 수출

IPO간담회

비피도

17·18일 청약, 26일 코스닥 상장

장내 미생물로 아토피·과민성 대장염·류마티스 등 질병의 면역 치료를 연구하는 기업 비피도가 연내 코스닥 시장 진입을 시도한다.

비피도는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코스닥 시장 상장에 따른 향후 성장 전략 및 비전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비피도는 한국투자증권 주관으로 이날까지 수요예측을 끝내고 17, 18일 청약을 거쳐 오는 26일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이다.

지근억 비피도 대표이사가 12일 여의도 기자간담회에서 자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배한님 수습기자

1999년 설립된 비피도는 강원도 홍천에 생산 시설을 두고 장내 미생물을 뜻하는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 중 비피도박테리움(Bifidobacterium)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회사다.

마이크바이옴은 인체에 존재하는 모든 미생물의 군집과 이들 미생물 군집이 가지는 유전 정도 전체를 의미한다.

인체에서 유래한 핵심 균주인 '비피도박테리움 비피덤 BGN4'와 '비피도박테리우 롱검 BORI'는 비피도의 기반 기술이다. 두 균주는 올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신규 식품원료로 등재됐다.

비피도는 비피도박테리움을 통해 아토피 면역, 과민성장염 등 면역 관련 질환 연구를 지속했다. 최근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균을 개발하기도 했다.

새로운 균주를 분리·동정하고 제품화까지 할 수 있는 파마바이오틱스 개발 프로세스인 '비피도-익스프레스 플랫폼' 또한 비피도의 차별화된 장점이다. 현재 25개국 시장에 제품 수출도 하고 있다.

비피도 매출액은 2017년 136억 64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3%가 늘었다. 영업이익률도 작년에 약 22% 증가해 수익성을 보이고 있다. 올해 3분기 매출액만 113억 2500만원으로 작년 매출액을 뛰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근억 비피도 대표이사는 "뇌졸중, 치매, 정신질환, 암 등 문제들이 잘못된 몸 속 나쁜 균인 유해균 때문에 만들어진다 해서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며 "대변 치료법 등 유익균으로 유해균을 몰아내면 높은 치료율을 얻을 수 있다"고 사업 취지를 밝혔다.

비피도는 이번 코스닥 상장을 통해 총 41만 주를 공모한다. 공모 희망가 밴드는 2만2100원~2만8700원으로 최대 117억 6700만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비피도는 이번 공모 자금을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센터 설립 및 신약 개발에 사용할 계획이다. /배한님 수습기자 ericabae1683@

GTX건설 가속… 노선 따라 아파트값 오를까

국토부, C노선 2021년 말 착공 '파주~화성' A노선 연내 첫 삽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시대가 가속도를 내면서 수혜가 예상되는 아파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GTX-C노선이 비용편익비율(B/C) 1.36(합격 기준점 1), 종합평가(AHP) 0.616(합격 기준점 0.5)을 받아 사업을 확정했다. 따라서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양주 덕정~경기 수원 74.2㎞) 건설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GTX노선 수혜지역 내 주요분양 예정단지〉

사업명	위치	총세대(일반분양)	전용면적(㎡)	건설사	분양시기
안양호계 두산위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661-1번지	855 (414)	36~84	두산건설	분양중
더샵 파크에비뉴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224-24번지 일원	420 (317)	39~97	포스코건설	12월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 일원	836	128~162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12월
운정신도시 파크 푸르지오	경기도 파주시 운정3지구 A14블록	710	59~84	대우건설	1월

*위 내용은 건설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료=부동산114, 각 사

GTX-C노선은 양주(덕정)~의정부~창동~광운대~청량리~삼성~양재~과천~금정~수원까지 47.9㎞에 이르는 노선이다. 총 사업비는 4조3088억원으로 일반 지하철보다 3~4배 빠르다.

내년 초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경우 이르면 2021년 말 착공하게 된다. 또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GTX-A 노선(파주 운정~화성 동탄)의 연내 착공 가능성이 높아졌다.

GTX-A 노선은 파주 운정에서 삼성역을 거쳐 화성 동탄을 잇는 총 83.1㎞ 구간이다. 예정대로 2023년 GTX-A 노선이 계획대로 개통되면 동탄~삼성역 운행시간은 현재 77분에서 19분으로 단축된다.

두산건설은 GTX 수혜가 예상되는 곳에서 아파트를 선보인다. 두산건설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서 분양 중인 '안양호계 두산위브' 36~84㎡ 855가구 중 414가구를 분양한다. 지하철 1·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이 단지에서 직선거리로 1㎞ 이내에 위치해 있다.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첫 분양단지다.

포스코건설은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2구역 재개발 지역에 들어서는 '더샵 파크에비뉴' 420가구 중 39~97㎡317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나들목(IC)이 차량으로 10분 거리다. 또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에는 서울 청량리, 삼성동 등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들어선다.

/이규성 기자 peace@